

혼란에 빠진 방글라데시의 의류산업

Surendra Pratap (홍콩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AMRC))

■ 머리말

방글라데시의 의류산업은 현재 혼란에 빠져 있다. 투자자와 수익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의 삶을 희생함으로써 더 이상 수익머신으로 일하다 죽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투자자와 국가에게 전달했으며 의류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노동자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선언한 임금 수정안(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왜 자신들이 삶을 희생해 수익머신으로 일하다 죽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해 왔다. 이 글에서는 의류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과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투쟁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 의류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

방글라데시의 의류 및 섬유산업은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유일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실질적으로 도시 및 농촌 빈민층의 생명줄이다. 방글라데시 인구의 절반이 여전히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악의 빈곤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서비스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GDP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 측면에서 그 비중은 34.6%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집약적 산업 제조 분야의 성장은 주로 섬유

및 기성복(RMG) 분야가 이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약 300만 명, 간접적으로(운송산업은 기성복 운송을 통해 연 7,000만 달러를 벌고 있으며, 치타공 항구의 화물 중 80%가 기성복이며, 민간 은행 대출의 60%가 기성복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 2,0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기성복 생산과 섬유는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기도 하다. 또 다른 주요 외화벌이 수단은 해외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인들이 보내 주는 송금이다.

방글라데시의 섬유산업은 다카와 치타공의 수출가공지역에 집중해서 위치하고 있다. 섬유산업에는 니트류, 기성복, 일부 전문섬유 제품이 포함되는데 섬유산업 수출이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약 80%를 차지한다¹⁾. 방글라데시는 2009년 의류 수출 부문에서 26억 6,000달러를 수출하며 인도(22억 7,000달러)를 앞지르기도 했다. 현재 섬유 수출 부문 세계 3위로(금액 기준) 터키와 중국의 뒤를 쫓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중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방글라데시의 주요 의류 수출 시장이다.

방글라데시의 의류 노동자 임금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1994년 최초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위원회 권고안을 기반으로 의류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 950타카(미화 15달러)로 책정되었다. 이렇게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은 노동자들이 장기간 투쟁해 2006년 2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설립 될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2차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월 1662.50 타카(미화 24달러)로 정했다²⁾.

그 이후 노동자들은 4년간 임금 수정을 위해 투쟁해야 했으며, 마침내 2010년 의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월 3,000타카(미화 43달러)로 책정되었다. 하지만, 노동자와 노조는 최저임금 월 5,000타카(미화 72달러)를 요구했다.

방글라데시 영양과학부(Department of Nutritional Science)는 한 개인이 일을 하기 위해 섭취해야 할 최저 식품섭취 비용을 일일 60타카라고 밝혔다(2010년).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통상 자신의 임금 중

1) Snehal Shingavi(2010), Textile strikes rock Bangladesh. <http://socialistworker.org/2010/08/24/textile-strikes-rock-bangladesh>

2) Gament workers' minimum wage fixed at Tk 3,000. <http://www.thedailystar.net/newDesign/news-details.php?nid=148544>

45%를 식료품에 소비하며 55%를 다른 생필품에 소비한다. 따라서 1인당 총 일일 생계비는 약 133타카이이며 4인 가족 1일 평균 생계비는 532타카(월 TK 7980)이다. 하지만 노조와 노동자는 최저임금으로 이에 못 미치는 월 5,000타카(미화 72달러)를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거부당한 것이다³⁾.

투자자와 이들의 대변인은 집단교섭권이나 의류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마치 의류 노동자의 생활 및 근로조건이 개선되면 방글라데시 전체가 망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 투자자들은 저임금을 통한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챙기고 있다: 10년간 세금면제, 자본재 수입에 대한 면세, 3년간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10년간 배당세 면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수출에 대한 면세, 미국, 유럽, 일본 시장에서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보장하는 혜택, 미국으로부터의 최혜국 대우. 또한 수출가공지역(EPZ)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상한선은 없으며 수익을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허용된다.

만일 투자자들이 이러한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도 방글라데시에서 값싼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비교우위를 유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비교우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임금이 월 72달러로 오른다 하더라도 이는 전 세계에서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임금은 약 300달러이고 인도는 약 106달러, 베트남은 약 92달러, 파키스탄은 약 116달러, 스리랑카는 약 92달러이다⁴⁾. 방글라데시에서는 현재 임금이 겨우 43달러로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72달러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요 의류수출 국가 임금보다 훨씬 낮다.

방글라데시 개발연구소(Bangladesh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가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 노동자들이 창출하는 가치는 100 중 약 31이며, 이 31 중에서 겨우 7만이 임금으로 지급되고 24는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돌아간다. 세계은행 추산 역시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가 연간 2,536장의 T-셔츠를 생산하면서 290달러를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착취 문제를 제기

3) 의류 노동자 투쟁지원; <http://www.cpb.org.bd/>

4) 의류 노동자 투쟁지원; <http://www.cpb.org.bd/>

한다. 한편, 인도 노동자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보다 56장의 셔츠를 더 생산하면서 668달러를 받고 있다⁵⁾.

■ 매년 화재 사고로 수많은 노동자가 사망

12월 하빔 그룹의 스포츠웨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근로조건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언론 조사를 통해 출구가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상하게도 개별 의류공장 화재 상황을 하나 둘 종합해 보면 익숙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보도한 대로 불타는 공장에서 살아남은 일부 노동자들은 경비원들이 비상계단의 접이식 출구를 막았다고 말했다. 많은 노동자들은 불타고 있는 공장 사무실의 정문 역시 닫혀 있었다고 불평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수도 파이프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희생자가 불에 타 죽었던 과거의 의류공장 화재와는 달리 하빔그룹 의류 공장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사망자는 11층짜리 건물의 10층과 11층에서 뛰어내린 것 때문에 발생했다⁶⁾.” 약 29명의 노동자가 이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⁷⁾. 이는 노동자에 대한 투자자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개해 온 현지 노동운동과 국제연대 단체가 얼마나 무용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최근 몇 년간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비극적인 화재 사고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5) 의류 노동자 투쟁지원: <http://www.cpb.org.bd/>

6) Garment fire and unanswered questions—Deeper management malaise needs addressing. <http://www.thedailystar.net/newDesign/news-details.php?nid=166305>

7) Garment fire and unanswered questions—Deeper management malaise needs addressing. <http://www.thedailystar.net/newDesign/news-details.php?nid=166305>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전체적인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며, 이는 공장 화재 사고에서 발생한 높은 숫자의 근로자 사망 건수에 잘 나타나 있다.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의 화재 사고에서 발생한 사망 건수에 대한 <표 1>은 끔직한 근로조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는 언론에서(데일리 스타) 수집 및 발표한 일부 리스트에 불과하다⁸⁾. 방글라데시 소방서비스 및 치안부(Fire Service and Civil Defence Department)에 따르면 2006~2009년 213개 공장 화재에서 414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⁹⁾.

<표 1> 의류 공장의 화재 사고에서 발생한 사망 건수

연도	사망자 수	공장	연도	사망자 수	공장
1990	32	사라카가먼츠, 다카	2000	23	마크로스웨터, 다카
1996	22	루샤크가먼츠, 다카	2004	23	초두리니트웨어, 나르싱디
1997	24	상하이어패럴즈, 다카	2005	23	산니팅, 나라양간지
1997	20	자하나라 패션, 나라양간지	2006	62	KTS가먼츠, 치타공
2000	12	글로브니팅, 다카	2010	29	하임 그룹 스포츠웨어 공장, 치타공

■ 결사권과 단체교섭권 문제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 투쟁의 1단계는 주로 노동기본권을 위한 것이었다. BEPZA 법(BEPZA Act 1986)은 노사관계령(Industrial Relations Ordinance: IRO)이 수출가공지역(EPZ)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8) Enemies of the Nation or Human Rights Defenders: Fighting Poverty Wages in Bangladesh, SweatFree Communities 2010. www.sweatfree.org

9) W.A. Sunil and John Chan: Factory fire and police killings fuel discontent among Bangladeshi garment workers, 16 December 2010. <http://www.wsws.org>

선포했는데, 의류산업의 대부분이 EPZ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으로 의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중단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후 의류 노동자의 결사권 회복을 위한 장기간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연합(Bangladesh Garments workers Unity Council : BGWUC)은 2001년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전국파업을 촉구했으며,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 및 수출업체연합(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BGMEA)에 6개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기본적인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신규 임금체계, 의류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EPZ에서의 노조권 이행, EPZ 내 정착촌, 학교, 병원 설립, 1997년 및 2000년 BGMEA와 BGWUC이 체결한 협정의 이행(노동자들에게 인사통보문, ID 카드, 서비스 책자, 매주 휴일, 출산 휴가 등을 제공하기 위한).

방글라데시와 미국이 체결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협정은 2001년 종결되었는데 노조의 EPZ 활동을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3년간 이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 노동단체들의 압력이 있다¹⁰⁾. 2001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4년 1월 1일부터 EPZ 내 노조권리에 대한 제한을 철회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따라서, EPZ에서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투쟁과 캠페인은 2004년 이례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¹¹⁾.

마지막으로 EPZ 내 노조 설립의 기반이 되는 EPZ 노동자 결사 및 노사관계법(EPZ Workers Association and Industrial Relations Act, 2004)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기단계에서(2006년 10월 31일까지) 노동자들은 노동자 대표 및 복지위원회(Worker Representation and Welfare Committees : WRWC)만 설립할 수 있었고, 2단계에서는 법에 명시한 노동자협회(Workers' Associations)라는 노조로 WRWC를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 후 2008년 많은 공장에서 찬반 투표가 실시되었고 69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복지위원회가 아닌 노동자협회에 찬성표를 던졌다. 찬반 투표는 2010년 또 다른 120개 사업장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다¹²⁾. 하지만 2009년 법이 개정되었고 법률상 '노동자협회'는 '노동자복지조직(Workers' Welfare

10) Surendra Pratap 2009: SEZ Rush in India: Working Paper, CEC, New Delhi.

11) The New Nation, February 01, 2004

12) Surendra Pratap 2009: SEZ Rush in India: Working Paper, CEC, New Delhi.

Organization)’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서 후퇴한 것이다. 또한 EPZ 내 파업과 공장폐쇄 금지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2008년 10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은 방글라데시 수출가공지역청(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이 이를 2010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결사 및 단체교섭권이라는 전체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파업권 금지가 (2010년 10월 이후) 종료될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노동자들은 공장 수준에서 여전히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없으며 노동조합을 결성할 실질적인 권리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단체교섭 전략이 방글라데시에서 탄생했다. 노동자 NGO들이 의류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직으로 부상했다. 국제노조들도 의류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NGO를 설립 및 지원했다. 의류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방글라데시 노조 전략은 전통적인 사업장 노조주의 전략과는 다르다. 사업장 중심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강령을 기반으로 의류 노동자를 조직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공장 내 조직보다는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을 조직하는 데에(일종의 지역사회 조직화) 더 역점을 두고 있다. 단체교섭 역시 공장 수준의 교섭보다는 전체 산업계 수준의 교섭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의류 노동자들의 결사권과 임금을 위한 전체 투쟁 역시 공장 수준이 아닌 전체 산업 수준의 교섭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들의 투쟁은 항상 경제적이(특정 고용주와의 교섭)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다양한 공장이나 산업 노동자의 공동 요구에 대한 산업별 교섭 또는 전국적 교섭). 또한 총파업, 도로 점거 등 정치 투쟁의 형태와 전략을 채택하기 때문에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고 주도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의류 노동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의류 노동자 투쟁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단체에는 21개의 등록된 의류노동자연맹(전국의류노동자연맹 : NGWF 등)이 구성한 공통 플랫폼인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합동위원회(Bangladesh Garments Workers Unity Council : BGWUC), 방글라데시 독립의류노동자노조연맹(Bangladesh Independent Gament Workers Union Federation : BIGUF) (미국 AFL-CIO 노조연맹 국제부서인 연대센터의 지원으로 설립), 의류노동자단결포럼(Garments Workers Unity Forum : GWUF), 의류스라믹노조 켄드라연맹(Garment Sramik Trade Union Kendra Federation : GSTUKF)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기본적인 최저임금을 위한 투쟁과 최근의 충돌

최저임금을 위한 주요 투쟁의 1단계는 2005~2006년 시작되었다. 2006년 5월 22일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집회에 합류했고 즉각적인 급여 인상, 성과급이 아닌 보장된 기본 임금, 체불임금 지급, 초과 근무수당, 고용주 횡포 중단 등 11개항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다카 북부에서 시위했다. 경찰과 준군사 조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들을 진압했고 그 이후 시위는 폭력적으로 발전하였다. 마침내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월 3,000타카를 요구했으나 월 1,662.50 타카(미화 25달러)로 결정되었다.

2008년부터 2010년 하반기 절정에 이를 때까지 노동자들의 저항은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다. 저임금과 비인간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져갔고 이는 식료품 가격의 폭등으로 사실상 노동자들이 기아선상에 빠지게 된 2008년 4월 거리로 분출되었다. 의류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최저 월급여는 실질적으로 1일 1달러 미만이었으며, 4인 가족은 그 임금으로는 생존할 수 없었다. 쌀값이 거의 세 배나 올랐기 때문이다(가장 큰 이유는 작년의 사이클론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때문).

2008년 4월 14~15일 다카에서 수천 명의 의류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고, 주로 치솟는 식품 가격에 항의하며 실질임금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¹³.

2008~2009년 실질적인 가격 전쟁이 특히 방글라데시,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 주요 의류수출 국가 사이에 발생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 의류 가격이 떨어지자 투자자들은 노동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고자 했으며, 임금 삭감, 임금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의 수단에 의존했다. 2008~2009년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은 거의 30% 삭감되었다. 임금 삭감은 도시노동자뿐 아니라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2009년 정부의 공장 감사부(Factory Inspection Department)는 14.7%의 공장(조사대상 825개 업체 중 122개)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공장은 심지어 최저임금조차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13) Randeep Ramesh (April 15, 2008), Bangladeshi garment workers strike over food prices; <http://www.guardian.co.uk/world/2008/apr/15/bangladesh>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량과 정신적 압박은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비를 증가시켰다¹⁴⁾.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의류산업계의 불안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월 5,000타카 등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2009년 일련의 파업과 항의 시위가 있었다. 시위는 6월 말 정부의 진압에 대한 대응으로 폭력적인 양상을 띠었다. 2009년 6명의 노동자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시위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¹⁵⁾.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투자자나 국가 모두 의류산업에서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09년 노동자들의 경험이 이들에게는 많은 측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은 투자자와 국가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으며, 삶이 나아지려면 집단적인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2009년 이후 총동적인 시위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파업과 시위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특히, 의류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조직적인 힘과 잘 계획 및 조직된 행동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2010년 한 해 동안 의류 노동자들의 시위 집회는 더욱 확산·과격해지고 과거보다 더욱 단호해졌다. 많은 경우 이들에게 가해진 전례 없는 진압에 대해 시위는 폭력적이 되었다. 1월부터 6월까지 약 72건의 노동불안이 발생했으며 경찰과의 충돌에서 약 988명의 노동자들이 다쳤다¹⁶⁾. 2010년 6월 약 40명의 노동자가 사바르 EPZ에서 경찰과의 충돌로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시위대를 분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했다¹⁷⁾. 6월과 7월의 경우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폭력적인 항의시위와 파업이라는 압박으로 인해 마침내 정부는 의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수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노동자단체들이 제시한 요구 사항에는 최저임금 월 5,000

14) Shafiq Alam (AFP) (2009), Bangladesh textiles unravelled by price war, protests

http://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iZ97IWqs0MOdzGJe7uLm-bLg_08g

15) Enemies of The Nation or Human Rights Defenders: Fighting Poverty Wages in Bangladesh; www.sweatfree.org

16) Enemies of The Nation or Human Rights Defenders: Fighting Poverty Wages in Bangladesh; www.sweatfree.org

17) http://www.thedailystar.net/newDesign/latest_news.php?nid=24208

타카뿐 아니라 작업장 내 안전보장, 화재 사고나 공장 내에서 발생한 기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가족에 대한 보상금 100만 타카, 생필품 가격 폭등과 인플레이션에 따라 실질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ILO 협정에 따라 방글라데시 노동법2006(Bangladesh Labour Act 2006) 개정,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공장 소유주 처벌,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한 공장 폐쇄, 공장에 적절한 가스와 전기 공급 보장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지해야 한다¹⁸⁾. 하지만 위원회는 오직 임금 요구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마침내, 위원회는 7월 말 권고안을 마련했는데(14차 회담 후) 2010년 11월부터 의류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월 3,000타카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¹⁹⁾. 또한 위원회는 출근 보너스 등 기존의 모든 제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²⁰⁾. 임금위원회가 선언한 기본적인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자들은 당연히 불만족스러웠으나 주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당분간 이 임금조건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다시 시위 현장으로 내몬 세 가지 주요 문제가 있었다.

첫째, 투자자들은 위원회가 선언한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들은 3,000타카가 아닌 2,500타카로 임금을 고정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새로운 임금은 8월이 아니라 11월부터 적용하도록 선포되었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셋째, 고용주들은 다양한 수당을 삭감하기 시작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을 삭감하거나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속수당 중단을 시작했다.

고용주들이 새로운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국가는 고용주들을 강제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신규 최저임금 시행을 요구하며 다시 한번 항의시위를

18) RMG workers demand Tk 5,000 minimum wage; <http://www.thedailystar.net/newDesign/news-details.php?nid=133856>

19) Garment workers' minimum wage fixed at Tk 3,000; <http://www.thedailystar.net/newDesign/news-details.php?nid=148544>

20) Garment workers' minimum wage fixed at Tk 3,000; <http://www.thedailystar.net/newDesign/news-details.php?nid=148544>

시작해야 했다. 7월 마지막 주 의류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항의시위가 다카 및 주변 산업지역에서 시작되었다. 7월 30일부터 시작된 항의시위에서 노동자들은 도로를 가로막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공장을 공격했다²¹⁾. 공장 소유주들은 총 노동비용에 새로운 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보너스, 초과근로수당, 기타 재정적 혜택을 삭감·거부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많은 경우 폭력적 양상을 띤 일련의 시위가 있었다. 그 이후 노동부는 의류 공장 소유주들에게 임금 및 기타 정당한 수당을 노동자에게 모두 지불할 것을 촉구했다²²⁾.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따라서 2010년 12월 광범위한 노동자 시위가 지속되었다.

2010년 12월 12일, 경찰과 노동자 간 치명적인 충돌이 있었고 치타공 항구도시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경찰이 쏜 총에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²³⁾. 그 와중에 12월 14일, 다카 근처의 하빔그룹 스포츠웨어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약 3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²⁴⁾.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 후에야 대규모 노동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던 대부분의 공장 소유주들이 신임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적어도 말로나마 ‘급여 계산상 일부 실수들’(보너스, 초과근로수당 등 미지급분)²⁵⁾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노조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항의시위를 촉구하지 않았으며 고용주들에게 노동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7월 임금합의를 존중해 줄 것을 호소했다.

12월 중반 특히 상기 언급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는 후에야 정상화가 되었고 대다수의 공장들이 생산을 재개했다고 한다.

21) Thousands protest Bangladesh wages for fourth day; <http://www.mysinchew.com/node/42750>

22) Enemies of The Nation or Human Rights Defenders: Fighting Poverty Wages in Bangladesh; www.sweatfree.org

23) W.A. Sunil and John Chan (16 December 2010): Factory fire and police killings fuel discontent among Bangladeshi garment workers; <http://www.wsws.org>

24) W.A. Sunil and John Chan (16 December 2010): Factory fire and police killings fuel discontent among Bangladeshi garment workers; <http://www.wsws.org>

25) W.A. Sunil and John Chan (16 December 2010): Factory fire and police killings fuel discontent among Bangladeshi garment workers; <http://www.wsws.org>

■ 영원무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국 회사인 영원무역은 치타공과 다카에 총 17개의 공장을 가진 방글라데시 최대의 의류 제조업체이며, 방글라데시에 대한 한국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치타공에 한국 수출가공단지를 설치했다²⁶⁾. 영원무역은 한국의 대표적인 아웃도어 의류 및 장비 제조업체로서 OEM 형태로 나이키 등 약 30개의 글로벌 브랜드에 제품을 납품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의 No.1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총 매출액은 4,377억 원이었다²⁷⁾.

치타공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시행을 위한 이번 투쟁에서 선두에 섰다. 해당 지역에 있는 영원무역 약 14개 공장에서 온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매우 친밀하여 동일한 고용주의 반노동적 관행에 대해 더욱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원무역 노동자들이 이번 투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의 주요 요구 사항은 7월 정부가 발표한 신임금 체계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임금체계가 도입된 후 영원무역이 인건비 감축 조치로 점심 값 지급을 중단하자 노동자들의 분노가 분출되었다. 영원무역 노동자들은 업무를 중단하고 시위를 시작했으며 250타카(3.5센트)의 점심 식대 지급 재개를 요구했다. 한국인이 소유한 영원무역이 노동자들의 조업 중단에 대한 보복 조치로 11개 공장 문을 닫은 뒤 경찰은 실제로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들을 공격했다²⁸⁾.

영원무역에 대해 방글라데시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치타공 시위와 특히 영원무역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가혹한 진압에서 잘 드러난다. 2010년 12월 12일, 경찰은 550개의 고무탄과 95개의 최루탄을 발사했으며 그 사격으로 인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²⁹⁾. 당연히 노동자들은 이

26) Korea-Bangladesh Ties Grow;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0/09/211_63041.html

27)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0/12/113_77916.html

28) W.A. Sunil and John Chan (16 December 2010): Factory fire and police killings fuel discontent among Bangladeshi garment workers; <http://www.wsws.org>

사건 이후 폭력적이 되었고 해당 지역 약 20개 공장에 피해를 입혔다.

■ 맺음말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임금 투쟁이 일반적인 종류의 임금 투쟁과 집단교섭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매우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주요 의류수출 국가들이 동일한 몇 개의 선진국으로부터 더 많은 외국인 투자와 더 많은 수출 주문을 받기 위해 혹독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가들의 의류산업 성장은 투자자들에게 놀라운 수익을 보장해 주는 무제한의 저가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비인간적인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해당 국가의 서민층과 국민들을 상대로 한 전쟁이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방글라데시의 의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요구를 할 때마다 잔인한 진압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이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결사권과 단체교섭권이 제도적으로 강제로 거부 당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것이 너무 비인간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의류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노예제와 같은 여건에 직면해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농촌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가장 낮지만, 여기 방글라데시의 경우 농촌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의류 노동자보다는 높다. 2008년 농촌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일 150타카(월 4,500타카)였다³⁰⁾. 반면, 의류 노동자들의 급여는 2006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고 2008년에도 겨우 월 1,662.50타카였다. 의류 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말 정부가 임금을 인상하도록 장기간의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해야 했지만, 의류 노동자들에게 선포된 최저임금은 2008년 발표된 농촌 노동자의 임금보다도 훨씬 낮은 월 3,000타카였다.

29) W.A. Sunil and John Chan (16 December 2010), Factory fire and police killings fuel discontent among Bangladeshi garment workers; <http://www.wsws.org>

30) Enemies of The Nation or Human Rights Defenders, Fighting Poverty Wages in Bangladesh; www.sweatfree.org

의류산업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라는 시스템은 노동자에게 잔인한 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 시위를 처리하기 위해 특수경찰(Rapid Action Battalion)(보통 조직범죄와 테러협박을 처리하는 최고의 경찰 부대)이 배치되었으며 2008~2010년 4,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체포되었다. 여기에는 바불 아크터(Babul Akhter) BIGUF 대표, BCWS(Bangladesh Centre for Workers Solidarity) 칼포나 아크터(Kalpona Akhter) 대표, GWUF 모쉬레파 미스후(Moshrefa Mishu) 대표, GSTUKF(Garment Sramik Trade Union Kendra federation) 몬투 고쉬(Montu Ghosh) 등이 있는데 이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탄압을 당했으며 2008~2010년 대규모 시위 당시 체포되었다. 노동계 지도자인 아미nul 이슬람(Aminul Islam)은 심지어 고문을 당했으며 '노동불안을 선동'했다는 자백서에 서명해야만 했다³¹⁾. 또한 의류 노동자 조직에 참여했던 NGO도 탄압을 받았다. NGO국(NGO Affairs Bureau)은 이 시기 동안 많은 경우 투쟁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약 334개의 NGO를 폐쇄했다³²⁾. BCWS는 법적 지위도 박탈 당했다³³⁾.

어찌되었든 '정상'이 회복되었으나 이는 단지 시위가 끝났고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뿐이다. 하지만, 실제로 노동자, 노조 지도자, NGO는 여전히 형사사건 등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다. 또한 의류산업의 성장에 대한 전체적인 논리(가장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더욱 탁월한 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의류수출국가 간 비인간적인 경쟁)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언제까지 이 '정상'이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KLI**

31) Bangladeshi Women Garment Workers Strike for \$72 per month; <http://labornotes.org/blogs/2010/08/bangladeshi-women-garment-workers-strike-72-month>

32) Textile strikes rock Bangladesh (August 24, 2010). <http://socialistworker.org/2010/08/24/textile-strikes-rock-bangladesh>

33) Bangladeshi Women Garment Workers Strike for \$72 per month. <http://labornotes.org/blogs/2010/08/bangladeshi-women-garment-workers-strike-72-month>